

神性と 人性의 복잡한 갈등구조

이승우의 「에리직톤의 초상」

이승우의 장편소설 「에리직톤의 초상」은 기독교를 축으로 신성과 인성(세속성)의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소설이며, 그 구체적 갈등과정이 개성적 인물들을 통해 복합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뛰어난 문학적성을 획득하고 있다.

사건은 이 작품의 화자인 김병욱을 매개로 전개되고 있다. 신학대학 교수이자 병욱의 한때의 연인이었던 헤령의 아버지 정상훈 교수는 인간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수평적 관계의 무질서, 혼란, 갈등은 신성의 무시, 즉 수직적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에 연결되어 있다. 그 그늘에 헤령이 위치한다. 연인이었던 병욱이 목사의 길을 포기하자 그녀는 연하의 남자 최형석과 함께 독일유학을 떠나지만 상처만 입고 귀국한다. 인간속에 내재한 야수적 속성에 절망한 그녀는 수녀가 됨으로써 신성 속에 도피한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러나 한때 신학생이었으나 노동운동가로 변신한 최태혁과의 만남을 계기로 인간과 신사이의 수직적 관계 속에 은폐되었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집단 사이에 내재한 수평적 관계의 갈등적 실상을 체현함으로써 그녀의 세계관은 변모한다. 즉 선형적 도그마로 존재하였던 사랑이 구체적 인간인 최태혁이나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열려진다. 그녀는 '천사원'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

헤령과의 사랑 때문에 신학자로서의 길을 택한 형석은 인간적 삶의 부조리, 모순을 인식하지만 이 불확실성을 초월적 가치로 전환하지 않음으로써, 또 그 극복에 실패함으로써 비극적 인물이 된다. 자신이 느끼는 실존적 고독과

허무 때문에 절망하고, 변기를 타고 오르는 구터기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교황을 저격함으로써 교황으로 대표되는 독선적 신성(즉 수직적 관계)을 파괴하려 했던 델브룩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구체화시키려 하지만, 결국 자살하고 만다. "한 사람이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부도덕하다. 삶은 총을 똑바로 쏘는 것이다. 나는 총을 쏘았다"라는 델브룩크의 외침처럼 그는 가장 구체적 실존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시도는 자기 폐쇄적인 한계를 지닌다.

신성에 대한 또다른 도전적 인물인 태혁은 구체적 인간관계인 수평적 관계의 모순을 개혁함으로써 신의 사랑을 실천하려 한다. 부정 한 목사의 교회에 불을 지르거나 악덕 기업주의 공장에 불을 지르는 그는 의미있는 신의 모습은 구체적 현실속에 내재하고 있으며, 부정 한 현실과의 싸움이 사랑의 실천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는 광포한 현실의 폭력 앞에서 실패하고 만다. 현실적 압력 때문에 목사를 포기하고 신문기자가 되는 병욱은 신의 폭력이 아닌 인간이 폭력 때문에 신문사에서 해직 된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은 쉽게 하나의 논리로 지양되지 않음으로써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점이 이 소설의 장점이 된다. 쉬운 화해는 얼마나 쉽게 깨지는가. 수녀원의 경찰침입으로 상징되는 세속적 폭력에 대한 그들의 좌절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모습이 된다.

박신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1-3 · 학생

수학교사들이 쓴 수학이야기

육인선 외 지음 「수학은 아름다워」

중·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지겨워하고 싫어하는 과목은 단연 수학이다. 국어나 사회, 국사 등의 과목은 앞에서 배운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 안되면 냅다 외우기라도 하면 되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다. 앞에서 배운 것이나 저학년 때 배운 것을 모르면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짜증만 나고 자연히 수학시간에는 딴짓을 하게 된다. 대학에 들어와 수학을 전공한다고 하는 나로서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수학시간은 지겨운 시간임에 틀림없었다.

중·고등학교 수학시간이 지겨운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도대체 수학을 배워 어디에 써먹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점이다. 어쩌면 수학이란 과목은 수학생남이라는 직업을 세상에 존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상황이 이러할 때쯤, 조금 늦었다는 감은 들지만 수학을 재미있게 만든 '주범' 격인 일선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세 분이 '수학시간에 딴짓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수학은 아름다워」(동녘)라는 책을 펴냈다. 숫자, 대수, 기하, 해석기하 네 분야에 걸쳐 역사, 의의, 재미있는 설명, 뒷 얘기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첫눈에 수학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한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수학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읽어보면 수학에 흥미를 가지는데 참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는 수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예전에 수학에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최소한 예전에 투자한 시간에 대한 '본전'은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에 보면 현재 남태평양 제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는 아직도 아주 작은 수밖에 셀 줄 모르는 원주민들이 있다고 한다. 어떤 원주민들은 1, 2까지 세고 3 이상이면 무조건 '많다' 라고 표현한다. 퀴슬랜드의 원주민들은 2를 단위로 하여 1, 2, 2와 1, 2와 2, 많다 이런 식으로 4까지 셀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퀴슬랜드 원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내 생각이 너무 지나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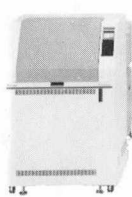
이창무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805-137 ·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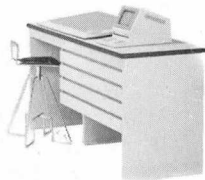
단색 SCANART 450 II - 국반절 Size 초스피드 실현

“편집자의 창조력에 보답하는 製版시스템”

- 인공지능을 내장한 Hi-Tech제판라인은 시간경쟁의 추종을 불허.
- 초고속·정밀도로 시간낭비와 인력소모를 배제합니다.
- 네거티브 가격으로 포시티브제판을 봉사해 드립니다.



450 II



30 II

※ 시간약속은 금,
정밀은 신용!
믿고 맡기십시오!!

- 국내 최대 Size(국반절) 입출력
- 고속스캐닝으로 대량 신속처리
- 멀티 디지털 시스템으로 작업효율 향상
- 두꺼운 원고 자유자재 입력
- 토탈편집 기능으로 더욱 선명한 화질

우성사

서울시·중구 충무로4가 56-1 (신도빌딩 2층)
TEL: 272-2864 · FAX: 275-7016

현대 소련지식인들의 일상적 삶 묘사

유리 뜨리포노프의 「그때 그곳」

우리는 사람을 집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도 설렘없이 만난다.

이렇듯 사람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를 엄습하는 고독감은 웬것일까? 그 고독감을 달래기 위해 디스크 텍에서 몸을 흔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소설이나 시를 읽어본다. 책 속의 사람들도 현실의 사람들과 비슷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까. 좀더 직설적으로 설명하자면, 나와 비슷한 타인을 발견하고 느끼는 훈훈한 연대감이 좋고, 또 작가가 창조해낸 그들의 행위, 말, 사고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의 병의 원인을 알아차리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병의 원인을 알면 받은 치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지 않던가.

「그때 그곳」의 안찌뽀프는 힘들고 아파하던 지난 겨울에 내가 만난 따뜻한 사람이다. 연애하듯 그 책을 읽었고 그를 사랑했다.

그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운명을 선택하는데, 운명도 우리들을 선택한다. 우리들은 운명의 선택을 도발하는 것이다.”

그래요, 안찌뽀프. 무의미하게 두손을 비비며 울상을 짓고 서 있는 사람은 나약한 운명을 도발하는 것이겠죠. 비판적 사고는 게으른 삶을 도발하는 것이고...

전쟁(제2차세계대전)으로 소집되어, 비행기 부품인 라디에이터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게 된 두 소비에트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 소설은, 러시아문학 하면 혁명적 노동자, 농민의 전형을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 지식인의 일상적 생활과 감정까지도 철학적·휴머니즘적으로 통찰해냄으로써 또다른 소비에트문학의 심오함을 맛보게 해주었다.

이 소설은 정연한 군화발소리가 울리는 듯한 스탈린시대에서 개혁의 바람이 꿈틀대는 80년대 초까지, 작가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그 이야기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안찌뽀프의 유년, 청년, 노년시절을 잔잔하게 펼쳐가면서, 작가는 주변 등장인물 한사람 한사람을 치밀한 관찰로 생생하게 묘사해낸다. 그리고 소설가로 나오는 주인공 안찌뽀프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한 예술가의 사명과 양심, 역사 앞에서의 의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삶에 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 등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게 한다.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든 비슷한 구석이 있음일까? 때와 곳은 다르지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든 비슷한 구석이 있음일까? 때와 곳은 다르지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신혜금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아파트 19동 408호

‘사랑의 길’에 대한 명상

칼린 지브랄의 「삶의 길 사랑의 길」

「삶의 길 사랑의 길」(황토)은 광주출신의 시인 박몽구씨가 칼릴 지브란의 여러 작품 중에서 주옥같은 문장을 골라 뽑아 엮은 책으로 화가이기도 한 지브란이 책의 군데군데에 직접 그린 그림들이 삽입되어 있다. 엮은이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칼릴 지브란이 쓴 「예언자」, 「예언자의 동산」, 「소중한 예언자」, 「광인」, 「산문시」, 「모래와 물거품」, 「사람의 아들 예수」, 「영혼의 잠인」 등에서 그 우주적 질서와 영혼의 진수가 혼용된 세계를 총망라하여 엮은 것”이라 밝히고 있다.

엮은이가 다소 거창하게 자신하는 ‘우주적 질서와 영혼의 진수가 혼용된 세계’란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을 정확히 나타낸 표현인가, 아니면 심한 ‘과대포장’인가는 「삶의 길 사랑의 길」을 몇 페이지만 읽어보면 독자 스스로가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전 3부로 엮은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제1부 「영혼의 명상」 몇 부분을 읽어보아도 우리는 우리 앞에 칼릴 지브란이 펼쳐놓은 ‘우주적 질서와 영혼의 진수가 혼용된 세계’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 대하여’로 시작하여 ‘삶의 법칙에 대하여’, ‘세월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등 수십 개의 테마에 대한 지브란의 짧은 단문으로 이어지는 1부 「영혼의 명상」은 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만큼 가장 의미있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삶의 법칙에 대하여’란 테마를 들추면 거기에는 “우리는 수다쟁이로부터 침묵을,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내를, 불친절한 사람으로부터는 친절을 배운다. 그럼에도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 스승들에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다”라든지 “거북이는 토끼보다 길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많다”든지 하는 그냥 읽고만 넘길 수 없는 문장들이 모여 있다. 제1부를 읽을 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문장의 ‘너무 짧음’으로 인한 아쉬움은 제2부 「깨달음의 우화」에서 다소 긴-물론 이것도 상식적으로 짧은 글이지만-우스개 이야기(?)로 극복할 수 있다. 제3부는 칼릴 지브란의 유일한 희곡작품인 「예술가 아실반」이다.

엮은이는 책의 제목을 「삶의 길 사랑의 길」로 뽑은 이유를 “칼릴 지브란이 그의 글과 그림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것은 다름아닌 인간으로서 가야 할 ‘삶의 길’이었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행해야 할 ‘사랑의 길’이었기”때문이라고 말한다. 새봄을 기다리며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오래된 벗 같은 책이다.

정민아

전남 목포시 용해지구 16블럭 16호트 35동 4번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

출판·편집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디자인 회사,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이 지닌 감성구조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출판디자인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4-4 용우빌딩302호

TEL : 268-2327~8, FAX : 268-2329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

출판·편집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디자인,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이 지닌 감성구조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출판디자인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4-4 용우빌딩302호

TEL : 268-2327~8, FAX : 268-23

출판기획



하얀 여백과 신선한 아이디어와의 만남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져드립니다.

표지디자인
단행본편집·제작대행
광고카피 및 디자인
사보기획·제작
기업체홍보물(카탈로그등)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재동 107-1 (안국전철역)
TEL : 764-8238